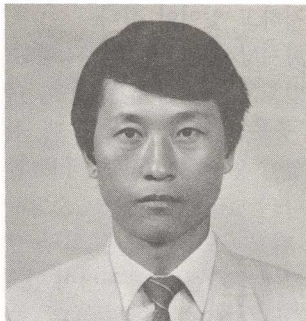




방화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1. 인류의 축제 올림픽

근대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로서의 의미 이외에 인종, 국가, 종교, 정치를 초월하여 전세계인의 단결과 친선을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류 최대의 제전이다. 이러한 제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보도진 등 대회 관계자와 외래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경기장, 선수촌, 행사장 등의 시설을 행사 개최국에서 준비해야함은 물론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국민의식구조 등 다방면에 걸쳐서 평가받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여 선진국 대열로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의 저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대회준비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이를 실행함으로써



변 상 호

〈올림픽조직위원회 안전국〉

써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야 한다.

2. 서울올림픽대회 개요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상당히 오랫동안 동서진영의 화합을 이루는 축제행사로써 세계 1백67개 IOC회원국 가운데 1백61개국 참가를 통보해 음으로써 약 1만3천여명의 선수단과 7천6백7십명의

대표단, 2십만명 이상의 관광객, 경기관중 2백7십만명이 참가할 것이다. 경기대회는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 경기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는 34개 경기장, 72개 연습장에서 실시되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 보도진 등은 올림픽선수촌(9.3~10.5), 기자촌(9.2~10.5)에서, 행사참석 귀빈과 대회관계자들은 본부호텔과 올림픽헤밀리 아파트 등에서 숙박하게 된다.

'88올림픽대회를 위한 행사준비인력은 조직위원회 1천3백명, 자원봉사자 3만명, 경기단체 2천9백명, 통역 5천6백명, 기타 지원인력 1만1천2백명 등 약 5만명의 운영요원이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나. 행사내용

8월23일 올림픽발상지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채화된 인류평화의 불꽃 성화는 3일간 그

리스 국내봉송을 한 뒤 항공기로 제주도에 직송하여 22일간 전국을 돌면서 범국민적 축제분위기를 조성한 후 9월17일 12시44분경 올림픽주경기장 성화대에 불꽃을 당기면, 화려하고 장엄한 개회식은 절정을 이루어 온 인류가 한국인과 함께 문화, 인종, 이념의 벽을 허물고 올림픽대회를 시작하게 된다. 10월2일 저녁에는 성화가 꺼지고 화려한 폭죽이 잠실벌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모두가 애잔한 석별의 정을 나누는 폐회식이 있다. 개회식에서 폐회식까지 16일동안 육상, 수영, 체조 등 23개 종목에서 2백37개의 금메달을 놓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열띤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 기간을 전후하여 세계 현대미술전(8.17~10.5), 한국미술전(9.12~10.31), 한국문화재 특별전(8.17~10.7), 문화소개 특별전(9.1~10.9) 등과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행사 17건, 전시행사 24건의 수준높은 문화 예술행사가 펼쳐진다. 그리고 세계의 청소년들이 대회전후 10일간(9.13~10.2) 올림픽 분위기 속에서 국제 친선을 도모하고 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 2백명, 국외 8백명

의 젊은이가 모인다. 이밖에도 “후기산업시대 세계가족”이란 제목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세계석학 2백45명이 참가하며, IOC, ASOIF 총회 등 대회관련 국제회의가 46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3. 대회관련시설 화재예방의 중요성

가. 대회관련시설의 범위

'88올림픽대회의 직접관련시설은 경기장 34개와 연습장 72개, 선수촌, 기자촌 등 6개 시설에 국한되지만, 지정호텔 등 46개소, 김포공항 등 4개소, 방송센터 등 16개소, 서울역, 부산항 등 8개소도 포함된다.

그러나, 올림픽 안전을 위한 방화대책의 관점에서 볼 때 대회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뿐만 아니라 행사와 관련한 내외국인들이 출입하는 쇼핑센터, 관광지, 민박지, 요식업소, 공연장, 지방행사장 등의 시설물 모두가 올림픽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이들에 대한 방화안전관리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화재예방의 중요성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함에 따른 갖가지 위험

사고의 발생은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이 중에서 올림픽 시설의 폭파, 인질납치 등의 테러, 범죄행위는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출입통제, 경호, 경비, 보안 등의 치안 활동으로 위해요인을 사전 봉쇄할 수 있으나 대회관련 장소에서 관리부재에 따른 화재발생 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실화 등은 행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의 자각과 방화 의식 없이는 사전 예방이 곤란하여 안전한 행사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대회에 직접 관련이 없는 관광지, 쇼핑장소 등 내외국인이 출입 사용하는 대중 집회 장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다수 인명피해나 손실의 정도를 떠나서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어 있는 올림픽 개최국에 대한 방화대책의 허점과 그 수준을 의심하게 되며 과거 대연각 호텔 화재와 같이 또다시 방재 한국의 명예에 손상을 주고 올림픽 행사의 축제 분위기를 흐려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방화관련관계자 모두는 '88올림픽 준비요원이란 사명감을 갖고 시설물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서울올림픽관련시설 방화대책의 방향

올림픽관련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한 방화대책은 크게 나누어 발화예방과 화재발생시 불의 연소를 통제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올림픽행사를 위해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화재 예방에 관한 대책의 수

서울 올림픽 대회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회기간	88. 8. 17(토)~10.2(일)	16일간
장소	서울, 경기, 지방 4개도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종목: 23개 종목(237개 세부종목) 시범종목: 야구, 태권도, 여자 유도 전시종목: 배트민턴, 볼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대회보다 추가된 종목: 탁구, 테니스 기타 16개 세부종목
시설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 34개, 연습장 72개 관련시설 6개 	
참가규모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국: 161개국 경기관중 270만명 선수단: 13,674명 대표단: 7,670명 관객: 2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 8,982명 임원: 4,692명

립과 시행에 있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선수촌, 기자촌 등의 대회 직접관련시설의 화재 방지를 위하여 시설 설치시 구조나 설비면에서 관계법규정 이상의 방재 시설을 갖추도록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소방관서에서 행사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등의 지원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안전전문요원, 그리고 소방안전분야에 종사했거나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교육 후 각 행사 운영본부별로 3~10명씩 배치하여 운영사무실, 식당, 휴게실, 관중석 등에서 방화순찰, 금연구역의 지정, 화기단속, 화재예방 계몽 활동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인이 모여있는 행사 현장에서 긴급사고발생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행사운영 기본조치를 활용하여 대회 장소별로 시설물 특성에 적합한 자위소방 활동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지원요원, 자원봉사자등 운영요원 교육시마다 슬라이드 상영, 소방훈련과 같은 방화관리교육을 대회 전까지 3~4회 실시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에서 이와 같이 행사에 직접 관련한 시설물에 국한된 행사운영본부의 대책으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기대치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축제는 경기장, 행사장내에만 있지 않고 도시 전역에 걸쳐 있으므로 소방 안전의 관점에서는 화재방지의 사각지대가 한 곳에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올림픽대회의 안전을 위한 방화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그 실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방화업무 관련 민·관기관 모두가 올림픽행사 준비의 일원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상호유기적인 협조와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대회소방안전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성하고, 둘째, 이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에 관련된 직·간접 시설물에 대한 방화시설 설치 유도과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올림픽기간 동안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 범국민 생활화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가 방화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올림픽 행사를 기점으로 국내 방화관련 분야도 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여 전시 시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무부 소방국,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상호간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올림픽방화대책 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전까지 월 1~2회 회의의 안전을 제출, 올림픽지원업무를 협의한다. 그리고 올림픽참여 내·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의 올림픽 소방안전 태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방관서, 소방차량, 소방장비의 소개, 올림픽소방안전활동과 관련된 시범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각 협회는 소방홍보전시회, 홍보영화 상영회 등을 순회 개최하여 범국

민 불조심 계몽활동을 벌이고 소방기계기구 생산업체들도 올림픽기간 동안 “한국소방기계기구 종합전시회”를 계획하여 방재기술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세와 성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한다. 이밖에도 내·외국인이 출입할 주요시설의 방화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림픽안전의 분담역할을 다짐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서울올림픽대회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1백61개국의 참가가 예상되어 올림픽 사상 최대의 행사가 될 것이다. 이 대회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한편 5천년 우리 민족사의 찬란한 문화와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 대회이다. 따라서 평화의 대제전을 완벽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제반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다수인이 출입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태세 확립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대회 관련요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방화안전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각자가 화재예방활동을 솔선수범하여 한건의 화재피해도 없는 무재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방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 (㉞)